

[고2 장비2] 1-2- (1) 다문화 시대의 한국 문학

코끼리

(김재영)

<핵심 정리>

갈래 : 단편 소설

성격 : 사실적, 현실 고발적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 이주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한국의 한 동네

제재 :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

주제 :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민

출전 : 『코끼리』(2005)

특징

-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 서술자는 어린 아이로 설정되어 있지만, 소설 전반에 작가의 이주민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드러남.

구성

- 처음 : 잘린 손가락을 땅에 묻는 아카스
- 중간 : 힌두교 신화의 코끼리 이야기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 끝 :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들은 나

등장인물

- 나 : 13살 된 소년. 이름은 '아카스'로 네팔말로 하늘을 뜻함.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음. 학교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 아버지 : 41세 된 노동자. 이름은 '어루준'. 전구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그만두고 현재는 종이 상자 만드는 일을 함.
- 어머니 : 중국에서 온 조선족. 현재 가솔한 상태.

상징

- 손가락 무덤 :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난사
- 파괴의 신 시바 : 원래는 창조를 위한 파괴의 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파괴를 위한 파괴를 제시함.
- 코끼리
 - 원래는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으나, 격이 낮아져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 존재.
 -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함.

해제 : 네팔에서 온 아버지와 중국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눈으로 아버지를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의 힘겨운 현실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그들은 출구 없는 막다른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새 삶의 기대를 안고 건너왔으나 이 땅은 가혹하다. 그들이 꿈꾸었던 새 삶의 세계로 통하는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이 땅의 현실을 견디며 무서운 절망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 그들을 작가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원평가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체 줄거리]

① '나'는 네팔 말로 하늘을 뜻하는 아카스란 이름을 가진 13살 된 소년이다. 그는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는 무적(無籍)의 존재이다. 학교에 다니지만 한국인들의 차별 대우 때문에 괴로워한다. 아버지 어루준은 네팔에서 온 41살 된 노동자인데 전구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그만두고 지금은 종이 상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인데 가솔하였다. 주인공 부자가 사는 곳은 가구 만드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가

구 공단에 있는, 축사를 개조해 만든 집의 단칸방이다. 그 집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여럿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힘든 노동과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디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사람도 여러 명이다. 주인공은 그 손가락을 얻어 땅에 묻는데, 이는 자기와 아버지의 손가락만은 그냥 두어 달라고 파괴의 신 시바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주인공을 비롯해 이들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은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져 가는 것이다.

2호실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만 들릴 뿐 축사 건물 전체가 조용하다. 나는 마당 한쪽에 있는 감나무 밑으로 다가가다. 커다란 들메이를 들추니 까맣고 축축한 흙이 드러난다. 삭정을 주워 와 땅을 파헤친다. 굵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햇빛에 놀라 꿈틀대더니 이내 흙 속으로 파고든다. 좀 더 깊이 파헤쳐 보지만 개미 새끼 몇 마리뿐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벌써 다 썩어 버렸나? 돈을 훔쳐 달아난 알리의 손가락을 초여름에 다섯 개나 묻었는데 하나도 없다. 작년에 묻은 베트남 아저씨 손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깊이 땅을 파려고 팔에 힘을 준다. 흙덩이가 부서지면서 얼굴에 튀는다. 그러고 보면 알리도 대단하다. 돈을 훔칠 때 어떻게 한쪽 손만으로 캐비닛을 밀치고, 벽을 파헤칠 수 있었을까. 삭정이 특, 부러진다. **㉠순간 하얀 뼈다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 온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주머니에서 손가락을 꺼낸다. 휴지에 말렸던 검붉은 손가락을 뼈다귀들 틈에 놓는다.** 물든 감잎 하나가 손가락 위로 살며시 내려앉는다. 나는 구덩이에 흙을 푹, 밀어 넣는다. 수돗가 쪽으로 침을 뱉 뱉고 나서 두 손을 모은다. '파괴의 신 시바 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는 제물을 바라지 마세요. 특히 아버지하고 제 손가락만큼은 절대.'

A[맹꽁이 자물통에 열쇠를 끼워 비틀고 문을 여니 방 안이 엉망이다. 냄비에는 어제 먹다 남긴 라면 부스러기가 툭툭 붙어 애벌레처럼 떠 있고 발길에 차여 넘어진 찻잔에선 치아가 흘러나와 콧물처럼 말라 간다. 돌돌 말아 창문 아래 밀어 놓은 이불 위에는 벗어 놓은 옷가지가 흩어져 있다. 가방을 구석에 내동댕이치고 옷더미 위로 풀썩 드러눕는다.]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일곱 개의 코를 가진, 퍼체우라에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인 그 코끼리는 원래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요?" 창문에 퍼체우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다.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알'을 깨뜨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뜨린 알이란 없어." 순간 못대가리에서 미끄러져 었나간 망치가 아버지 손톱을 짚었다.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곳, 후미진 공장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가늘게 떨리는 그 목소리 주인공은 2호실 토야 엄마다. **B[모레니에 절로 세이데세, 모레니에 절로 세이데세,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요……. 지남봉에 단속반을 피해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발목을 빼**

어 결국 잡히고 만 토야 아빠는 스리랑카로 추방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혼자 남은 토야 엄마는 집에서 기계 부품에 나사를 꺾어 버는 푼돈으로 연명하는 눈치다. **홀둘리아푸자 토레 게노 펠레라코 헬라거리, 탈 모르넷 아게 슈두 바레크 비레아쇼크, 기도 꽃을 꺾어 왜 그냥 버렸을까, 사랑하는 사람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세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다. 신 감치와 미역국 냄새, 연한 레몬 로션 냄새, 그리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스르르 잠이 오게 하는 신비한 살내까지. 지난봄에 어머니가 남기고 간 냄새는 한동안 방 안 어딘가에 남아 미풍이 불 때마다 언뜻언뜻 알아졌다. 하지만 이제 방 안에선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귀퉁한 흠아비 냄새와 지독한 곰팡내가 진동할 뿐이다.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는 어린 아이이다.
- ② 현실 고발적인 성격의 단편 소설이다.
- ③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소설 전반에 작가의 이주민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드러난다.
- ⑤ 작품 속 서술자가 대상에 대한 객관적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

2. 이 글에서 '손가락'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힌두교의 신 시바에게 바치는 제물 역할을 한다.
- ㄴ.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함축하고 있는 소재이다.
- ㄷ. '나'의 성격이 점차 파괴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 ㄹ. 아버지와 '나'의 손가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ㅁ. '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잘린 손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 땅에 묻는다.

- ① ㄴ ② ㅁ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ㄷ, ㅁ

3. 이 작품의 인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토야 아빠 : 부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
- ② 알리 : 알리는 손가락이 여러 개 잘렸다.
- ③ 어머니 : 지난봄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 ④ 나 : 이주노동자들의 잘린 손가락을 감나무 밑에 묻는다.
- ⑤ 아버지 : 전구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그만두고 현재는 종이 상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4. 밑줄 친 ㉠과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차운 산 바위 우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칠백 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노을이여.

이 밤 자연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 많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 조지훈, 「완화상(玩花衫)* - 목월(木月)에게」

- ① 이 글의 '나'와 <보기> 시의 '산새'는 상반된 처지에 있다.
- ② 이 글의 '나'와 <보기>의 나그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 ③ 이 글의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네팔 이름인 '아카스'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 ④ 이 글의 주인공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늘'과 <보기> 시의 '하늘'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⑤ 이 글의 '나'는 도시적 감수성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보기>의 '나그네'는 자연적 감수성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5. 이 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거주민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 ②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손가락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 ③ 아카스는 이미 비극에 익숙해져 있다.
- ④ 아카스는 고향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가 신화 속 코끼리와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아카스는 집을 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6. 위 글의 밑줄 친 A[]와 같은 서술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국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 이규보, 「국선생전」
- ②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공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선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③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는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오십 전짜리 은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 이상, 「날개」

④ “종학, 사 --- 상 관계 --- 로, 경 --- 시청에 피검! ……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 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巫山) 건너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막혀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생도 또한 슬픔을 감잡지 못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7. 이 글의 ㉔에서 서술하고 있는 ‘손가락 무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나’에 의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 ② 아버지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난다.
- ③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이주민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빌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⑤ ‘나’의 염기적인 행동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8. <보기>의 화자는 ㉔에서 ㉒로 그 처지가 변하였다. 위의 글에서도 이와 같은 처지 변화가 드러나는 대상이 존재한다. 다음 중 그 변화의 짝이 ㉔, ㉒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보기>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초차 삼기시니,
 헌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려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뒤 노여 업다.
 평생(平生)애 원(願)하오되 헌디 네자 하얏더니,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㉔광한연(廣寒殿)의 올났더니,
 그더되 엇디하야 ㉒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알키연디 삼년(三年)이라.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막음의 막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싱(人生)은 유한(有限)헌디 시름도 그지 업다.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①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
- ②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 후미진 공장 지대
- ③ 감나무 밑,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
- ④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 후미진 공장 지대

⑤ 감나무 밑,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

9. 다음 소재 중 아래 <보기>의 내용과 그 관련성 면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다문화 사회는 언어 문제, 종족과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 문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이주 외국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한국 사회를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만드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한국 문학에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현실을 다룬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문화 사회를 다루고 있는 한국 문학은 주로 이주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그들의 슬픔, 고통과 함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 ① 퍼체우라 ② 코끼리 ③ 단속반
- ④ 레몬 로션 ⑤ 치아

10. 다음 중 위 글의 밑줄 친 B[]에서 ‘토야 엄마’가 가졌을 정서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 ①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후건마는
 님 생애(生涯) 이러호되 설은 뜻은 업노래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헌 뜻이 온포(溫飽)애는 업노래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후리 님 이시리.
 그 밧기 님은 일이야 삼긴 뒤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② 농삿집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돌아.
 갈가마귀 날아다니 절기 익었고,
 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흰찰해.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지 원.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 이황, 「만보」
- ③ 뭇버들 갈히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되
 자시는 窓(窗)밧기 심거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니뵈 나가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 ④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쉼 사이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⑤ 사향(麝香) 박하(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배암 ……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동아리냐.
// 꽃대님 같다.

- 서정주, 「화사」

11. 이 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이 두드러진다.
- ② 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이 드러난다.
- ③ 신화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짧은 문장을 통해 담당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통해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환기를 시키려고 퍼체우라를 젖힌다. 노란 햇빛이 반대편 벽에 있는 히말라야 달력 사진에 내려앉아 너울댄다. 투명하고 생생한 햇빛, 푸른 티크 나무 숲, 눈 덮인 안나푸르나, 잔잔하게 물결치는 페와 호, 그리고 사탕수수를 빨아 먹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 …… **㉠아버지는 해마다 똑같은 달력을 사 온다.**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쁨을 얻듯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내 눈엔 오후 빛을 받은 히말라야가 금으로 식은 어금니처럼 보일 뿐이다. 햇빛에 녹아내리기 직전의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거나. 달력에서는 여전히 검고 굵은 동그라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마음이 편치 않다. 요즘엔 이상하게도 입에서 아무 말이나 튀어나온다. 학교에서 내내 긴장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귀찮고, 무엇보다 화가 난다. 오늘은 소영이 오빠가 친구들을 데리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내려왔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수업이 시작된 뒤에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겁이 나서 아니었다. 일대일이라면 자신 있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덩벼들어 쥐 잡듯 나를 짓밟는다면, 앞으로 나를 볼 때마다 누구든 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그것만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아기 손바닥만큼 작아진 빛은 퍼체우라가 흔들릴 때마다 놀란 듯 부르르 떠다. 갑자기 잠이 몰려온다.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면 좋겠다. 밤마다 아버지는 낮은 춤바를 입고 고향 마을로 찾아가는 꿈을 꾸다. 노란 유채꽃 언덕 너머 보이는 눈부신 설산과 낮익은 황토 집, 정다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꿈에서 아버지는 가녀린 통계 꽃과 붉은 비자 꽃이 흐드러진 고향 집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가족과 친지에 둘러싸여 달과 바트, 더르가리, 물소 고기에 토마토 양념을 발라 구운 첼라를 실컷 먹는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끌어낸다고 했다.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 줘. 일자리도, 이웃도, 내 청춘도 다 거기 두고 왔단 말이야. 제발……!” 잠꼬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키는 아버지는 매년 황급히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속옷을 벗으며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렇지만 나보다는 낫겠지.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다.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는 혼인 신고를 못 했다. 그래서 내겐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다. 학교에서조차 청강생일 뿐이다. 살아 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깜빡 잠들었던 걸까. 눈을 뜨니 방 안이 어둑어둑하다. 눈을 비비고 밖으로 나간다. 오늘도 비재 아저씨는 감나무 밑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술이라면 한 잔도 못 마시는 아저씨 얼굴이 이상스레 붉다. **A[마당 한가운데 있는 수돗가는 사람들로 번잡하다. 쪼그리고 앉아 감자를 꺾는 미얀마 아저씨 투라의 발등 위로 누군가 쌀뜨물을 하얗게 흘러내리고, 요란하게 푹푹거리는 도마 위에선 양파와 피망과 호박이 다져진다. 꼬챙이에 꿰인 양고기가 팬 위에서 지지직 소리를 내며 노린내를 풍긴다. 발목에서 찰랑대던 어둠이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감나무 가지에 걸린 백열등도 노랗게 빛을 발한다.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는 양동이에 텅 빈 물을 세숫대야에 부어 금발의 긴 머리를 행구고, 어린 토야는 저녁 짓는 엄마 등에 업혀 오랜만에 방긋방긋 웃는다. 온갖 나라 말과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인 마당은 벌, 나비가 웅웅대는 야생화 꽃밭처럼 향기롭고 소란하다.]**

B[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 생일날까지도 아근을 하나 보다. 음식을 준비해야겠다. 고향을 느낄 만한 걸로. 그러면 아버지 맘도 누그러지겠지. 선반을 뒤져 양파와 감자, 저나 콩 한 줌을 찾아낸다. 우선 저나 콩을 물에 담가 불리고 감자와 양파 껍질을 벗겨 잘게 자른다. 네팔 버터 기우에 잘게 자른 재료를 넣고 살짝 볶은 다음 잠시 생각하다가 거름메살라 가루가 든 봉지를 꺼낸다. 봉지가 훌쩍하게 구겨져 있다. 거꾸로 들어 흔들어 보니 바닥에만 남았던 가루가 조금 날린다. 지라와 랑, 썩멜, 고추, 더니아 따위가 들어간 그 양념이 없으면 더르가리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다. 숟가락을 냄비에 푹 콧고 가스 불을 꺼 버린다.]

12.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의 연민 섞인 시선이 드러난다.
- ② 13세의 사춘기 소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③ 심리 묘사와 풍경 묘사를 병행하고 있다.
- ④ 담당한 어조로 비극적인 상황을 서술한다.
- ⑤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인공을 관찰한 결과를 서술한다.

13. 다음 중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히말라야 사진이 들어 있는 달력이다.
- ② 아버지는 매년 같은 달력을 사오고 있다.
- ③ 아버지는 달력 속 사진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다.
- ④ 달력 속 사진은 아버지 고향의 모습을 담고 있다.
- ⑤ 아버지에게 달력이 갖는 의미와 나에게 달력이 갖는 의미는 동일하다.

14. 위의 밑줄 친 ㉡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15. 이 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드러난다.
- ② 아카스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 ③ 아버지 꿈속의 고향을 평화롭고 풍요롭다.
- ④ 아버지는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는다.
- ⑤ 아카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16. 위 글의 밑줄 친 A[]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빈곤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이 비극적을 제시된다.
- ② 대비적인 존재를 제시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다문화로 인한 문화적 혼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열악한 삶의 터전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 ⑤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동화적, 몽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위 글의 밑줄 친 B[]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에 대한 아카스의 애정이 드러난다.
- ② 생일날에도 야근을 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이 드러나 있다.
- ③ 훌쩍한 거렁메살라 봉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드러내고 있다.
- ④ 마지막 문장을 통해 현실이 가지고 있는 비극성이 강조되고 있다.
- ⑤ 갈등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인 소설의 결말 구조의 범주에 들어간다.

18. 이 글에서 주인공 아카스가 비판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는 어떠한 것인지, 정체성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19. 다음 위 글과 아래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국인들의 백인 이외 인종, 특히 동남아인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문제는 심각할 정도이다.

한국에는 법 없어요. 한국 사람 지켜 주는 법만 있어요. 미국 사람, 불란서 사람, 영국 사람 지켜 주는 법 있어요. 그러나 네팔 사람, 스리랑카 사람,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지켜 주는 법 없어요. 판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중기협도 마찬가지로 노동부도 마찬가지예요.
- “나마스테”, 84쪽

(중략) 이민 갔던 미국에서 수인과 그 가족들은 백인 중심 사상을 배우고 내면화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들이 보여 주는 같은 아시아 사람에 대한 무시는 바로 백인 중심 사상을 내면화한 결과였던 것이다.
- 조미숙, ‘다문화 시대의 문학적 대응’

- ① 백인 중심 사상을 감안한다면 현재 이주민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과거 우리들도 서양에서 받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아카스가 받는 고통은 우리가 백인 중심 사상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결국 우리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군.
- ④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군.
- ⑤ 결국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 이주민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겠군.

20. 위 글을 읽은 독자가, 이 글의 다른 부분인 아래 <보기>를 읽었을 때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푹 끊긴다. 검은 물체는 쓰러진 노랭이 앞가슴에서 심장을 뜯어내듯 지갑을 뺐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이 얼핏 보인다. 비재 아저씨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눈꺼풀 안쪽으로 은색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난다. 구덩이에 발이 빠진 코끼리는 큰 귀를 펼럭이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발버둥칠수록 뒷다리는 점점 더 깊이 빨려들어 간다. 구덩이는 삼시간에 시커먼 늪으로 변하더니 워든 집어삼킬 태세로 거세게 휘돌아간다. 아 ‘외’다. 현기증이 일도록 빠르게 소용돌이치는 ‘외’---코끼리는 맥없이 빨려 들어간다. 미처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

- ①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군.
- ② ‘앞가슴에서 심장을 뜯어내듯 지갑을 뺐는다.’는 구절을 통해 이주민 노동자들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군.
- ③ ‘희미한 달빛 아래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이 얼핏 보인다.’를 통해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그들의 인간성마저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는 군.
- ④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를 통해서 ‘나’가 ‘비재 아저씨’의 행위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구덩이에 발이 빠진 코끼리’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처지를 드러내는군.

<정답 및 해설>

- 1) ⑤ (해)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개관적 위치에서 서술’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이다.
- 2) ① (해) ‘손가락’은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함축하는 소재로, ‘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잘린 손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 땅에 묻는다. 이는 아버지와 자신의 손가락은 가져가지 말라는 의미로 시바 신께 바치는 제물이 된다. 이는 그만큼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일상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가 파과적인 성격을 가졌다고는 보기는 힘들다.
- 3) ① (해) 토야 아빠는 부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단속반에게 잡혀 스텔라카로 추방당했다.
- 4) ④ (해) ‘나’의 이름의 의미는 ‘하늘’이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준 주인공 아버지는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코끼리가 본래는 신을 태우는 천상의 존재 구름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나’의 이름 ‘하늘’은 이상적인 공간이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기> 시에서 ‘하늘’ 역시 너무 멀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 5) ① (해) 이 작품에서는 어린아이인 ‘나’조차 작업 중 잘린 손가락을 달라고 하여 가족의 건강을 빌고 있다. 즉, 이들은 그저 모여 거주하고 있을 뿐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 6) ② (해) A에는 묘사의 방법이 쓰였다. 이러한 서술방법이 쓰인 것은 ②이다.
- 7) ④ (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을 시바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나’와 아버지의 손가락이 무사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 마을 사람들 전체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8) ④ (해) <보기> 시의 화자는 ㉠ 천상에서 ㉡ 하계로 적당했다. 처지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 이와 같은 처지의 격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에서 한 번 드러나고(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 →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 그 이야기를 듣고 이루어지는 아버지께 대한 나의 생각(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 → 후미진 공장 지대)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다.
- 9) ④ (해) 레몬 로션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나는 냄새로, <보기>의 다문화 사회를 다루고 있는 한국 문학과 가장 거리가 먼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 ① 네팔 남자들이 몸에 걸치는 직사각형의 천이다.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임을 암시한다. ② ‘나’의 집 창문에 달린 퍼체우라에 수놓인 코끼리를 말한다. 힌두교에서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다문화 사회와 관련이 있다. ③ 이주노동자 중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속반을 일컫는다. 역시 다문화 사회와 관련이 있다. ⑤ 네팔의 전통 차 이름이다. ‘나’의 집에서 먹고 있는 것이므로 다문화 사회와 관련이 있다.
- 10) ③ (해) 밑줄 친 부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슬픔, 죽기 전에 다시 만나고 싶은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③ 흉량의 시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뿔버들’을 매개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11) ① (해) 이 작품은 웃음을 바탕으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풍자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 ② 하늘(구름)과 지상(기둥), 고향(네팔)과 타향(한국) 등의 이분법적 공간 인식이 드러난다.

- 12) ⑤ (해)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⑤는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13) ⑤ (해)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쁨을 얻듯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내 눈엔 오후 빛을 받은 히말라야가 금으로 씩은 어금니처럼 보일 뿐이다.’를 통해서 볼 때, 달력은 아버지와 나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14)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 15) ④ (해) 꿈속에서 아버지는 한국에 가족과 이웃, 청춘이 있기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오) ⑤ 아카스는 그리워할 고향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처지로 인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 16) ④ (해) 숙소의 저녁 풍경은 열악한 삶의 터전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꺼지지 않은 불씨와 같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17) ⑤ (해) 일반적인 소설의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면서 끝난다. 그러나 이 소설은 비극적 현실 상황이 부각되면서 끝난다. 즉, 갈등의 해소 없는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일반적 결말 구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
- 18)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가 혼인 신고를 못한 탓에 자신은 태어난 곳은 있지만 호적과 국적이 없다.
- 19) ⑤ (해)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가 백인 중심 사상을 내면화하여 인종의 차이를 우열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이미 ‘우리’와 ‘동남아시아인 등의 이주민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열의 시각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미 내면화되어 굳어진 시각을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20) ④ (해) 나는 비재 아저씨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는 놀라서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술되는 눈에 빠진 코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범법자가 되어가는 이주민 노동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재 아저씨’의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서술은 잘못된 해석이다.